

청소년 근로자들이 운다

최저임금 사각지대 아르바이트 현장

불경기와 취업난 속에 대학생들은 물론 고등학생들까지 아르바이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최저임금조차 못받고 열악한 근로조건에 법으로 정해진 권리를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본보는 광주시청소년상담센터, 광주지방노동청과 함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3차례에 걸쳐 긴급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해 본다.

시급 4천원? 어림도 없죠 식비 등 빼면 한달 25만원

말 뿐인 최저임금

여대생 이모(20)씨는 광주시 동구 충장로 유명 편의점에서 하루 5시간씩 일하고 있다. 갑자기 어려워진 집안 형편으로 이번 여름방학에 첫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그녀가 받고 있는 시간당 급료는 3천원. 법정 최저임금에 1천원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매일 5시간씩 하루도 안 쉬고 한 달간 일한 뒤 받는 임금은 모두 45만원. 학비를 벌어보겠다는 이씨의 생각과는 달리 교통비, 식비 등을 빼면 손에 남는 돈은 25만원 정도다.

이씨는 “여름방학이 되면 경쟁이 치열해져, 주인 아저씨와 미리 약속을 하고 일자리를 얻었다”며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이란 것을 알면서도 따질 수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이씨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해고 시 30일 전 통보 등의 법으로 정한 근로조건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동구 충장로의 한 복합매장에서 근무하는 정모(19)군도 최저임금을 못 받기는 마찬가지. 시급 3천원을 받다가 이달부터 3천500원으로 인상됐다. 이직률이 높은 시내 점포들은 주로 최초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춘다. 점차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광주지역의 산업 고용인원은 모두 63만7천명. 이중 사 회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도 소매·음식·숙박업, 개인 및 공공 서비스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55만1천명으로, 전체의 8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서비스업에 15~24세의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가 집중되고 있다.

광주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일자리는 편의점, 주유소, PC방, 대형 마트, 복합영화관, 음식점 등 서비스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업종의 경우 노동 강도가 약하고, 이직률이 높다는 특징 때문에 최저임금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노동청은 분석했다.

도심보다는 외곽지역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처우는 이보다 더 열악하다. 지난 5일 광주지방노동청을 찾은 이모(22)씨는 광산구의 한 PC방에서 시급 2천500원을 받고 3개월 간 일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업주를 고발한 이씨는 “주인 아저씨가 다짜고짜 욕설부터 해 당황했지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청소년 근로와 관련된 문의는 광주지방노동청에만 매주 3~4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법적인 처우를 받지 못해도 제대로 항의조차 못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할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한편, 광주지방노동청은 오는 13일까지 취약분야인 청소년근로자 고용업체 24곳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시청소년상담센터에서도 최근 광주 시내 주요 청소년 고용업체들을 상대로 실태파악에 나섰다. /윤현석기자 chadol@



F1 홍보 자전거 대장정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300여 명이 11일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전남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홍보 등을 위한 '자전거 국토대장정 발대식'을 갖고 4일간 국토 순례에 나섰다. 순례 코스는 경남 하동과 광양~순천~보성~나주~광주 등 총 연장 250km에 이른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생 300여 명이 11일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전남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2010 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 홍보 등을 위한 '자전거 국토대장정 발대식'을 갖고 4일간 국토 순례에 나섰다. 순례 코스는 경남 하동과 광양~순천~보성~나주~광주 등 총 연장 250km에 이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대통령, DJ 병문안... “일어서실 것”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오전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인 김대중 전 대통령(DJ)을 병문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맹형규 정무수석, 이동관 대변인 등과 함께 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 <관련기사 2면>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세브란스병원 20층에 도착하자마자 패용을 비는 기도를 한 뒤 의료진에게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병실 안으로 직접 들어가 김 전 대통령을 만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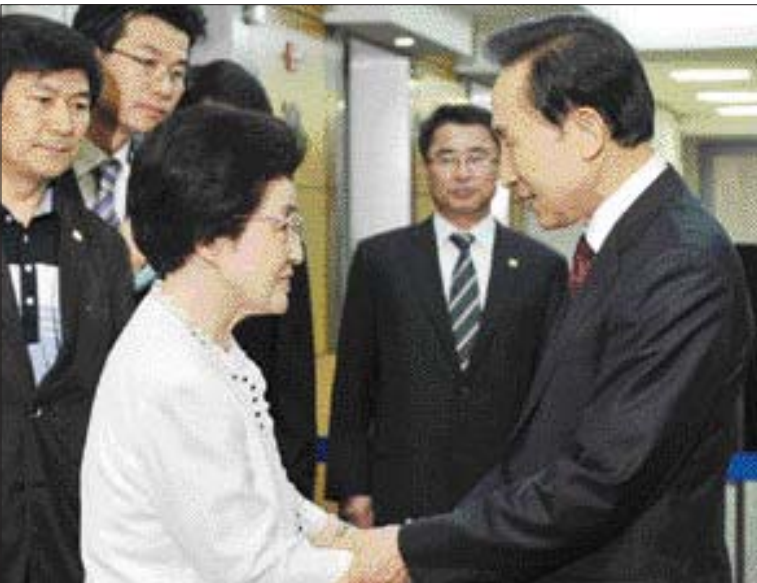
이 대통령은 이어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게 “(김 전 대통령이) 충분히 일어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이 돼서 국무회의에 처음 갔더니 김 전 대통령이 소개를 어떻게나 잘 해주셨는지 모르겠다”며 “당시 김 전 대통령이 ‘청계천 정갈 하느냐’고 했는데, 제가 된삭제해 ‘0점’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의료진들이) 아주 정성을 다해서 돌봐줘 마음이 놓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김 전 대통령 병문안 계획은 내부적 검토를 거쳐 이날 아침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병의 배경에 대해 “지난 주말부터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문병을 검토했다”며 “오늘 국무회의가 끝난 후 맹형규 청와대 정무



이명박 대통령이 11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병문안하기 위해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 이희호 여사를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석을 통해 박지민 의원과 통화한 후 마음을 투입할 정도로 상대가 호전됐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문병에 나서면서 “민주화와 민족 화해의 큰 발자취를 남긴 나라의 지도자이신 만큼 문병하고 패용을 비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나로호 발사 19일로 결정

6차례 연기된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발사체 ‘나로호(KSLV-I)’의 발사에 예정일이 오는 19일로 다시 결정됐다.

하지만 발사를 위한 최종 준비 상황과 발사 당일의 기상조건에 따라 발사가 연기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20일까지를 발사예비일로 설정했다.

교과부는 11일 “연소시험 데이터에서 특이값이 나타났던 1단 발사체의 보조펌프에 이상이 없다는 러시아의 공식 통보를 접수했다”며 “제2차 관 주재로 ‘나로호 발사준비 검토위원회’를 열고 러시아 측과 협의를 거쳐 결과 발사일을 19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중현 교과부 2차관은 발사 일주일 전인 12일 나로우주센터현장을 방문, 나로호 발사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할 예정이다.

/강필성기자 kps@kwangju.co.kr



생계형 범죄 152만명 사면

정치·경제인은 제외

정부는 광복 64주년을 맞아 운전면허 제재자와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시민 152만7천77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사면·감형·복권을 15일자로 단행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3면)

정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반인륜적 흉악범죄나 정치인·경제인·고위공직자 등은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특별조치 내용은 ▲운전면허 제재자 150만5천376명 특별감면 ▲생계형 서민범죄자 9천467명 특별사면·감형·복권 ▲어업 면허·허가 행정처

분 8천764명 특별감면 ▲해기사 면허 제재 2천530명 특별감면 ▲1천633명 모범수 가석방 등이다.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6만9천605명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고, 123만8천157명은 6월29일 이전 도로교통법상 벌점을 일괄삭제해 ‘0점’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운전면허 취소 등으로 1~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19만7천614명도 결격 기간이 해제돼 곧바로 재시험을 치를 수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보청기의 자존심
세기보청기
www.segistar.com
1588-8419 / 062-222-0100